

지역 매 아리

부안읍,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부안군 부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용환)와 부안읍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재희)는 최근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을 협약하고 관내 외곽지역 및 취약지역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읍은 기온상승으로 모기 등 해충활동이 왕성해지는 이달부터 해충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관내 외곽지역 40개 마을, 학교주변, 하천변, 하수구 주변, 쓰레기처리장, 축사 인근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역소독을 오는 10월 초순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안읍의 방역활동은 소재지권은 부안군 보건소, 외곽지역은 부안읍방역단에서 하절기 방역소독을 추진하며 해충 번식기인 7월과 8월에는 연막소독을 집중 실시해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방역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일몰 후에 방역을 할 계획이며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마을에 방역약품을 나눠주고 마을방역단장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해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는 올해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 구절초 테마정원을 조성한다.

# 구절초 5개 테마정원 조성

### 정읍시, 2021년까지 60억원 투입 기본계획 · 실시계획용역 착수 보고회

정읍시가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 구절초 테마공원 내 국공유지(296,637㎡) 내에 공간별로 5개의 테마정원(구절초정원, 물결정원, 들꽃정원, 참여정원, 사계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이전에 전라북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받아 전국적인 관광 휴양명소와 지방정원 성

공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해 4월 진행된 산림청 국비공모사업에 정읍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

착수 보고회와 함께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관계 부서장과 전북도 관계자, 정원과 조경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정원 조성에 대한 방향 설정과 개발 방안 등에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사계절형 테마정원으로 변화시켜야 그간 가을철에만 관광객이 집중됐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는 물론 지방정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경,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가들이 일손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을 찾아 일손도와 구슬땀을 흘렸다.

부안 해경은 지난해 7월 부정마을과 지역농협 연계 1시촌을 체결했으며, 6월 1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부안읍에 위치한 부정마을 농가를 방문해 약 20여 명의 경찰관들이 양파수확 지원, 육묘장 지원, 농가 환경미화 등 일손을 도왔다.

섬마을 주민 이모(68·여)씨는 "일손이 부족해 수확기를 놓쳐 애태우고 있었는데, 부안 해경에서 이렇게 찾아와 도와 주니 너무 고맙다"고 흐뭇해 했다.

일손돕기에 나선 손나별 순경(28)은 "음식을 먹을 때 당연하던 양파가 이렇게 어렵게 밥상까지 올라오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고창 애플수박' 전국 출시행사 성황

### 고창군, 고품질 · 작은수박 브랜드화 주력 희망 농가 교육 실시, 현장 컨설팅 등 지원

고창군에서 8일 새로운 수박 소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애플수박 출시행사가 열렸다.

고창항포배기유통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고창 애플수박 작목회(대표 김상훈) 주최로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 관련 기관과 단체,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창 애플수박 작목회에서는 12농가에서 5t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출시행사에서 선보인 고창 애플수박

의 무게는 2kg 내외로 작고 당도도 평균 13브릭스 이상으로 일반수박(10브릭스)보다 높다.

겉질은 얇아서 사과처럼 꺾어 먹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 1인 가구와 핵가족 등 가족수가 적은 소비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현대백화점, 조선희텔, 설빙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유니크파트너를 통해 홍콩으로 수출하여

해외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고창 애플수박의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애플수박 재배농가와 재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개발대학 수박펠로우 운영을 통해 재배기술 교육과 선진 농가 견학, 현장 컨설팅, GAP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소비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서 블랙망고수박과 애플수박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작은수박의 브랜드화를 통해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메가마트 등 3개 점, 남천점에서 수박 판촉행사를 가졌다.

## 정읍수박 맛과 우수성을 알리다

### 정읍APC, 부산 메가마트서 판촉행사

정읍 수박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소비자들의 입맛 잡기에 나섰다.

정읍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정읍APC)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 남천점에서 수박 판촉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박명인 이석변 공선출하회 회장과 수박장인 3명, 농협 지역본부, 행정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관계자들은 "행사에 농가가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읍 수박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읍 수박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소비자들의 입맛 잡기에 나섰다. 정읍수박은 씨 없는 흑피 수박으로 유명하다. 겉껍질 색이 일반 수박보다 진하고 비에 강해 당도가 일반 수박에 비해 1~2도 높으며 식감도 좋아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는 "농가, 정읍APC, 행정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앞으로 정읍의 과일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핵과류 자두곰보병 조사...이달 22일까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이달 22일까지 핵과류 자두곰보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술센터는 지난해 도내에 발생한 바 있는 자두곰보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핵과류 재배 196농가(90ha)에 대한 예방활동과 함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자두곰보병(PPV, PlumPoxVirus)은 식물바이러스상 금지 병이다. 뱀나무 속 식물인 복숭아와 살구, 자두, 매실나무 등에서 발생된다. 감염되면 잎에서는 모자이크 또는 원형반점이 나타나며, 과실 모양은 불균질한 기형이 되고 수량도

70% ~ 100%까지 감소된다.

감염이 확인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된 나무로부터 최대 650m 까지 조사한 후 뿌리채 뽑아서 묻어야 한다. 특히 최소 3년 동안 핵과류를 재배할 수 없게 돼 재배농가의 소득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치료제가 없어 치명적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에 중요한데, 예방책으로 무병 접목묘 사용과 잡초 제거 등의 청결한 과원 관리, 진딧물 방제, 그리고 전정에 사용하는 위와 톱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을 들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부안면, 옥실 내 안전 확보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고창군 부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배기영, 김성환)에서 독거인과 중증장애인 60세대에 옥실에 설치했다.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했다. 부안면은 노인과 장애인 세대가 다른 계층

에 비해 신체 균형 감각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져 옥실 내 미끄러짐 사고율이 높아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방문해 설치·지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1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